

## 태국 지진 발생으로 관광산업, 부동산 수요 위축 우려

- 3월 28일 미얀마에서 발생한 강진의 여파가 태국 방콕에도 발생해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불안감이 확대됨.
- 태국 방콕은 진앙지에서 약 1,000km 거리이나 방콕에서도 지진이 발생해 건물 붕괴, 지하철 및 도시철도 운행 중단, 증권거래소 거래 정지 등 혼란이 발생함.
    - 태국 카시컨 은행은 단기적 피해를 약 200억 바트(약 5억 9천만 달러) 규모로 추산했는데, 이는 주로 일시적 수요 위축을 반영한 수치로 향후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음.
- [관광] 관광산업은 지진으로 가장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로 관광객들의 심리적인 불안감을 단시일 내에 해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됨.
- 관광산업은 태국 GDP의 10~15%, 고용의 약 20%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이지만 재해, 질병 등 예측불가능한 악재에 취약한 편임.
    - 코로나 팬데믹 발생 직전 2019년 태국의 관광객 입국수는 약 4,000만 명으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으나 팬데믹으로 관광객 입국이 급감하면서 관광산업이 크게 위축됨.
    - 2024년 외국인 관광객 유치 실적이 약 3,554만 명까지 회복했으며, 2025년은 관광객 유치 약 3,80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진으로 인한 안전 이슈가 부각됨.
  - 태국호텔협회는 지진 후 약 2주 간 관광객 입국이 15%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측함.<sup>1)</sup>

표 1. 태국의 주요 관광 통계 추이(2018년~2025년 2월)

주요 지표	단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1월	2월
관광객 입국 수	천 명	39,916.3	6,702.4	427.9	11,065.2	28,150.0	35,545.7	3,709.1	3,119.5
객실 점유율	(%)	70.08	29.34	15.10	46.33	67.33	71.52	78.22	75.10
예약률(3개월)	(%)	28.70	8.01	3.04	17.20	27.03	34.76	44.18	42.01
평균 객실 단가	바트	1,733.73	1,105.80	976.23	1,062.85	1,488.19	1,884.44	1,918.51	1,861.97

자료: 태국중앙은행.

- [금융] 지진 발생 후 종합주가지수는 일시적으로 하락 후 반등했으며 바트화 환율은 큰 변동 없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함.
- 태국증권거래소는 3월 28일 지진 발생 즉시 거래를 중단한 후 3월 31일 개장했으며, SET 지수는 3월 27일 1,187.90에서 3월 31일 1,158.09까지 하락했으나 4월 1일 1,168.02으로 반등해 지진 충격은 일시적인 것으로 판단됨.
    - SET 지수는 전년 고점인 2024년 10월 1,485에서 지속 하락 추세이며, 기간별 실적은

1) Bangkok Post. 2025. "Massive quake is latest blow to Thai tourism hit by safety woes"(March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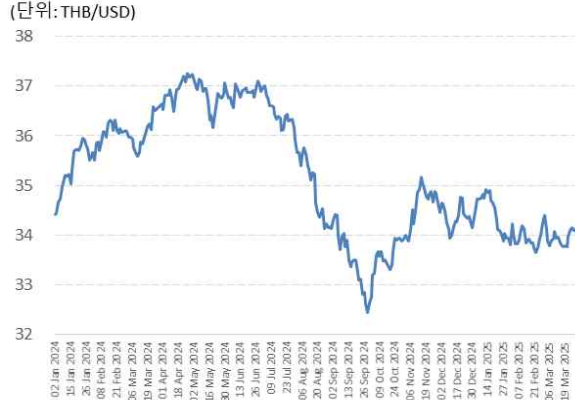
3개월 -17.29%, 6개월 -20.07%, 1년 -17.29%로 부진한 상황임.

- 바트화 환율은 달러 당 34바트 내외에서 등락하고 있는 상황이며 금번 지진의 환율에 대한 충격은 미약한 것으로 보임.

그림 1. 태국 SET 지수 추이(6개월)



그림 2. 바트화 환율 추이(2024.1.1.~2025.3.31)



자료: SET, 태국중앙은행.

□ [부동산] 지진으로 고층 건물의 안정성 우려로 단기적으로는 고층 건물 수요 감소, 장기적으로는 고층 건물 안전 요건 강화를 통한 신뢰 회복이 요구됨.

- 방콕의 다수 고층 콘도(아파트)에서 균열이 발생해 주택 수요가 고층 콘도 보다는 저층 주택으로 이동하면서 신규 콘도 판매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2011년 국토의 약 70%가 침수된 대홍수 발생 당시에는 저층 주택 수요가 감소하고 고층 콘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사례가 있음.
- 태국 콘도미니엄 협회에 따르면 2014년 3/4분기 콘도 매매 규모는 190억 바트로 14년래 최저 수준을 기록한 바 있으며, 지진으로 인한 안정성 우려로 2025년 2/4분기 매매가 15년래 최저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함.<sup>2)</sup>
  - 태국은 2007년 개정 건축법에 따라 내진 설계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금번 지진으로 방콕에만 2천여 건의 균열 피해가 발생함.

□ 금번 지진으로 인해 관광, 부동산을 포함한 시장 전반의 수요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이며, 태국 정부는 수요 위축에 대응해 적극적인 통화·재정 정책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됨.

- 태국은 2024년 10월, 2025년 2월에 각각 0.25%씩 기준금리를 인하한 바 있으나, 수요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4월 말 추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기됨.<sup>3)</sup>
- 태국의 8대 국영은행 주도로 부채상환 유예, 저리 및 긴급 대출, 수수료 면제 등 특별 구제안을 시행할 예정임.<sup>4)</sup>
- 태국 패통탄 행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한 현금성 지원인 ‘디지털 지갑’<sup>5)</sup> 정책을 추진 중

2) Bangkok Post. 2025. “Quake rocks property market”(April 1).

3) Bloomberg. 2025. “Thai outlook Dims After Quake, Raising Chance of Rate Cut”(March 31).

4) Nations. 2025. “State Banks Unveil Relief Measures for Earthquake Victims”(March 29).

5) 1인당 1만 바트(약 38만 원) 규모의 현금을 디지털

이며, 1차 2024년 9월 저소득층 1,450만 명, 2차 2025년 1월 노인층 300만 명 지급에 이어 3차로 2025년 2/4분기 중 청소년 270만 명에게 1만 바트(약 38만 원) 규모의 현금성 지원을 계획 중임.

**이재호 선임연구원**